

'전무님, 그냥 실무만 계속하면 안 될까요?'



“최 팀장! 이게 보고서냐? 발로 쓴 거야? 넌 왜 팀장 되고 나선 이 모양이야? 왜 그러는 거야?”

전무님, 화 많이 나셨죠? 솔직히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사실 '팀장'이 된 것부터 혼돈은 시작됐습니다. 갑작스레 전임 이 팀장께서 이직하셔서 공석이 된 자리에 앉긴 했는데, 사실 팀장이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. 회사에선 이틀짜리 팀장 교육 보내준 게 다였습니다. 말씀 안 드렸지만, 이 팀장한테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 여러 번 했습니다. 물론 듣는 것과 제가 하는 것은 차이가 컸지만요.

제가 별도로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. 리더십 관련한 책을 보고, 사비를 들여 온라인 강좌도 들었어요. 하지만 신통치 않더군요. 그러는 사이에 팀원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. 실무야 제가 잘 알죠. 하지만 팀원들은 옆에서 꼬치꼬치 가르쳐주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. '저리 가서 팀장이 할 일을 하세요~' 하는 눈빛들입니다. 그래도 어찌겠어요! 팀원들 하나하나 챙길 수밖에요. 팀장이 되고서 부쩍 야근이 늘었습니다.

전무님, 저는 아무래도 제너럴리스트 유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실무를 계속 파는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. 실리콘밸리에는 환갑 넘은 개발자들도 많았던데요. 왜 우리나라에선 연차가 차면 관리자를 못 시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. 사람은 분명 성향이 다른데 말이죠.

'전무님, 그냥 실무만 계속하면 안 될까요?'

I 필자: 에밀 팀장 in 팀장클럽(café.naver.com/teamleadersclub)